

지역 매 아 리

정읍시, 청년 지역 정착에 힘써

전북도와 정읍시가 도내 청년들의 지역 정착 지원에 나섰다.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저소득청년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외 유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총 30명이다. 지원 분야는 농업과 중소기업 중 제조업, 문화예술 분야 총 3개 분야다.

신청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으며 전년도 내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자다. 소득 기준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각 분야별로 1년 이상의 활동경력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접수(ulbank)로만 가능하며, 오는 10일까지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 납입·자격확인서, 자기소개서, 지원금 활용계획서 등이다.

신청된 청년에게는 월 30만원 씩 12개월간 현금이 아닌 포인트 연계 차입 방식을 통해 지원된다.

지원금은 온·오프라인에서 건강관리나 자기개발, 문화 레저, 일반 소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오프라인에서는 전북도 내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지원

농작물 수확기에 멧돼지로 인한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고창군이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무상임대 사업을 진행한다.

고창군은 멧돼지, 너구리,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해 '포획틀 대여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포획틀 대여'는 지난겨울 급격히 늘어난 멧돼지, 고라니 등을 잡아들여 생태계 질서 유지와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 최소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이다.

앞서 고창군은 포획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마을이장단을 통해 사업방법 시연 및 안전교육까지 마쳤다.

포획틀은 모두 28개로 14개 읍·면에 2개씩 배정됐다. 대여료는 무료이며 기간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받은 농민들이 해당 읍·면사무소에 포획틀이 허가와 대여 신청을 하면 된다. 포획틀에 야생동물이 잡히게 되면, 바로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허가받은 피해방지단원이 출동해 출구를 통해 구제하는 방식이다.

고창군은 관계자는 "이번 포획틀이 숲의 무법자 멧돼지 등 포획에 큰 효과가 있을 경우 내년엔 확대 설치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포획틀 사용 시 안전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총력'

정읍시, 위기가정 위한 긴급복지 지원 추진 활성화

정읍시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해보다 1억3000만원 상승한 9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과 중한 질병, 방임·유기, 재난·화재,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기준은 가구원 총소득이 중위소득 7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월 128만원, 재산 1억1800만원 이하(금융재산 5000만원 이하)다.

지원내용은 1인 기준 생계비 4만3000

원, 주거비 2만3000원, 의료비는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시는 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5월 말까지 1000세대 1600명에게 59300만원을 지원했다. 생계비로 39320만원(66%)을, 의료비로 19980만원(30%)을 지급했다.

시는 현재 올해 예산의 약 60%를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긴급복지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긴급복지 제도가 어려움에 처한 많은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긴급복지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가 시가지 산 9번지 정읍사문화공원 일대 4만7000여㎡ 면적에 대규모 도시 숲을 조성했다.

정읍 아양산 일대 미세먼지 잡는 '도시 숲' 조성 완료

정읍시가 시가지 산 9번지 정읍사문화공원 일대 4만7000여㎡ 면적에 대규모 도시 숲을 조성했다.

도시 숲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0억원(국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2017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8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9년 5월 사업이 완료됐다.

완공된 도시 숲 내에는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이고 산림휴양에 우수한 편백나무 등 조경수 2185주가 식재되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힐링 공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주민 여가생활을 위해 인근 아양산 등산로와 연계된 산책로를 정비하고 녹색 쉼터, 트리하우스, 흔들다리 등이 설치됐다.

또 어린이들의 전신적 성장과 숲의 친밀도 향상을 위해 숲 체험 놀이터도 설치되어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키워 갈 방침이다.

특히, 이곳엔 도시 숲이 조성되기 전 묘지와 생활 쓰레기, 잡목 등으로 출입이 어려웠던 곳으로서 인근 주민들과 정읍사공원을 찾는 방문객들

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림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시 숲 1만㎡는 연간 168kg의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도시 숲 조성으로 연간 약 789kg의 대기오염물질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숲 조성은 녹지 공간 확충과 미세먼지 저감, 심리적 안정과 정서 함양에 탁월하다"며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행복 나누는 고창 푸른 눈의 천사'

강칼라 수녀, 나눔의 삶 50주년 행사 열려

반 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나눔의 삶을 살아온 '고창 한센인의 어머니' 강칼라 수녀의 축하 행사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8일 고창군 호암마을 야외공연장에서 천주교 전주교구 김선태 주교의 주례로 강칼라 수녀(Talme Lida, 76세)의 50주년 축하행사가 열렸다. 행사는 기념미사와 수녀님과의 대화, 퓨전 국악 공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이탈리아 출신인 강칼라 수녀는 1962년 작은자매관상선교회에 입회해 1968년 한국에 파견됐다. 이후 50년 넘게 한센인 정착촌인 고창 호암마을에 머물면서, 한센인들의 마음을 사탕으로 보듬어왔다.

또 노숙자와 윤락여성 등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과도 함께해 '푸른 눈의 천사'로 불렸다. 강칼라 수녀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

아 2018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지난 해엔 호암상 사회봉사상을 받았다.

강칼라 수녀는 요즘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사업으로 도자기 만드는 일을 하면서 마을을 체험 장소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국회에서 전시회도 열린 '호암마을 도자기'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지역 공동체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수녀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 고창에서 나눔과 봉사, 기부천국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칼라 수녀는 "호암마을 주민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곳에서 삶의 기쁨을 얻고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함께 걸어온 이 길을 남은 여생도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의 미래, 힘찬 꿈을 응원합니다"

농논인재육성재단, 장학증서 수여

부안군 농논인재육성재단(이사장 권익현)은 지난 7일 부안예술회관 다목적강당에서 2019년 부안군 농논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 선발된 장학생은 6개 분야 797명으로 총 8억 1000만원의 장학금이 오는 10월 신청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04년 장학재단 설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분야별로는 반값등록금 장학생 576명, 성적우수 장학생 173명, 근농 장학생 3명, 희망 장학생 5명, 특기 장학생 33명, 비진학 창업·취업학원비 지원 장학생

7명 등이다.

부안군 농논인재육성재단은 지난해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대학교 1~2학년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데 이어 올해에는 입학축하금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738명에게 1억 4760만원을 확대 지급하는 등 꾸준히 장학사업을 늘려가고 있다.

또 재능인재를 위한 특기장학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성적우수 장학금, 희망장학금, 근농장학금, 비진학 창업·취업을 위한 학원비 지원 등 수요자 욕구에 부합하는 장학사업 추진으로 교육자치 실현에 집중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청년들 아이디어로 지역 문제 해결

정읍시의 IKT전북지역본부가 도시재생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도시재생 청년 해커톤을 운영한다.

해커톤이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마라톤을 하듯 긴 시간 동안 아이디어 창출, 기획 등의 과정을 통해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인 이 행사는 이달 28일부터 29일까지 무박 2일로 황토현 권역 어울림센터에서 진행된다.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전국의 대학생과 청년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해커톤은 팀별로 창업과 관광, 주거,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주제를 선택해 그에 따른 아이디어 발굴 과정을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추진된다.

해커톤에 참석한 청년들은 워드십 현장 투어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기초 조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전략(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직접 실행해보고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희망지는 정읍시 또는 전북과대학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접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 Wine featuring Mulberry Wine and various gift sets. Includ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boxe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describes the quality and availability of the products.